

#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PL 사고 사례집**



# CONTENTS



## PART. 1

### 협회 소개와 PL보험의 개요

한국제품안전협회(KPSA) 소개 .....	3
PL보험의 개요 .....	4



## PART. 2

### PL보험사고 사례

유형1 전기용품(1~20) .....	7
유형2 생활용품(21~24) .....	17
유형3 어린이제품 및 기타제품(25~30) .....	20



## PART. 3

PL보험 Q&A .....	25
----------------	----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PL 사고 사례집**

# PART.1

## 협회 소개와 PL보험의 개요



한국제품안전협회(KPSA) 소개  
PL보험의 개요

## PART.1

# 협회 소개와 PL보험의 개요

## 한국제품안전협회(KPSA) 소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제품안전 전문기관으로, 제품의 제조·유통에 필요한 안전 및 품질 관련 기술정보를 사업자에 원활하게 제공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주요사업

01

### 회원사 지원사업

- 회원사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 품목별 제조업체 협의회 운영 등

02

### 제품안전 및 품질관련 교육 사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교육
- 단체표준 제품안전관리담당자 교육

03

### R&D 및 학술연구용역

- 국가기술표준원 학술연구용역 및 R&D 과제 참여
- 용역 과제 수행 결과를 이용한 정책 제언 등

04

### 단체표준 인증·운영(미달이 중문)

- 단체표준 인증업무
- 공동구매·판매 사업

05

### KS심사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 현재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등 18품목 지정 1년 주기 공장심사 진행

06

### 대한민국 제품안전인상 수여

- 매월 제품안전 문화정착 및 확산에 기여한 자를 발굴·포상
-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소비자의 안전성 향상 도모

07

### 제조물배상책임공제(PL)

- 회원사 등 제품안전 사고로부터 안정된 사업 지원 목적
- 최소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 없이 사고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08

### 리콜공제

- 대한민국 최초로 리콜 공제 사업을 추진
- 제품 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리콜, 리콜권고(명령) 등 제품의 회수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 최소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 없이 리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PL보험의 개요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생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공제(보험) 상품입니다.

### ▶ PL보험 가입대상

전기·생활용품 등  
제조업체

수입·수출 업체

승강기 등 서비스  
용역 제공업체

도소매  
유통·판매 업체

### ▶ PL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 2002년 7월,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 14764호]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전기·생활용품 제조업자, 유통(수입, 수출, 판매)업자 등의 판매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조, 판매한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를 전문가와 보험사에 일임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 협회 PL보험 가입시 특혜

- 특별단체할인, 인증마크할인 등 : 20% ~ 40% 할인
- 전국 고객지원센터(현대해상)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 PL 전문 손해사정법인 및 법률사무소 제휴를 통한 피해구제 체계 구축

### ▶ PL보험 가입절차

보험료  
견적 의뢰  
(팩스 또는 이메일)

>>

보험료 산출  
(2일~7일소요)

>>

보험료  
입금

>>

증권 및 약관  
등기로 수령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PL 사고 사례집**

## PART.2

### PL보험사고 사례



유형1 전기용품(1~20)  
유형2 생활용품(21~24)  
유형3 어린이용품 및 기타용품(25~30)

## PART. 2

### PL보험사고 사례

#### 유형1 전기용품(1~20)



#### 1. 멀티탭의 쇼트 사고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7년 11월 10일

나. 종결일자 : 2018년 12월 28일

다. 사고원인 : 전기 과부하

라. 사고내용 : 10년간 사용한 오래된 전기밥솥을 폐기하고 P사의 새로운 전기밥솥을 구입한 K씨는 코드는 꽂지 않고 주방 선반에 놓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을 구입한지 3일이 지난 후, 오랜만에 친척모임이 있어 새로 구입한 밥솥을 사용하려고 전자레인지와 에어 프라이어가 꽂혀있는 3구 멀티탭에 전기밥솥의 코드를 꽂는 순간 전기 쇼트가 발생하여 분전반의 스위치가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인 K씨가 P사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면책종결 ● 지급보험금 : 0원 ● 지급부대비 : 70만원

## 2. 온풍기 과열 사고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7년 11월 26일

나. 종결일자 : 2017년 12월 30일

다. 사고원인 : 온풍기 과열

라. 사고내용 : 원룸에서 자취하는 C씨는 겨울 추위를 대비하여 인터넷으로 B사의 미니온풍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에 구입하였고, 11월부터 본격 겨울추위가 시작되면서 미니온풍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의사항에 적혀 있는 대로 과열방지를 위해 미니온풍기 위에 어떠한 물건도 놓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추운 11월 말, C씨는 구입한 미니온풍기를 사용하다 잠시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미니온풍기가 과열되면서 미니온풍기가 놓여있던 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냉장고까지 불이 옮겨 붙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C씨는 신발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냉장고까지 번질 뻔한 불을 겨우 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니온풍기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재로 냉장고와 장판이 훼손되어 소비자인 C씨가 B사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350만원 ● 지급부대비 : 80만원

## 3. 믹서기 화재

### ● 사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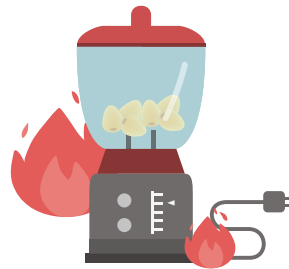
가. 사고일자 : 2015년 11월 10일

나. 종결일자 : 2016년 6월 26일

다. 사고원인 : 콘센트 접지극 과열

라. 사고내용 : 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H씨는 점심식사 준비를 위한 식재료로 마늘을 갈았습니다. 약 30분 동안 대용량 믹서기를 사용했고, 콘센트에 꽂아놓은 상태로 회사원들은 무탈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석식 식재료 중 일부 배송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외부에서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출타를 하였습니다. H씨는 출타 약 3시간 후, 식당의 화재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어있는 구내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할 만한 원인은 소비자인 C씨가 B사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5,000만원 ● 지급부대비 : 200만원



## 4. 전기매트 화재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8년 2월 22일

나. 종결일자 : 2018년 8월 8일

다. 사고원인 : 전기매트 온도조절장치 이상으로 과열현상

라. 사고내용 : 강원도에 위치한 한 육군부대에서 동절기 한파 대비를 위하여 L사의 전기매트를 다량 구매하였습니다. 구입 후, 약 3개월간 전기매트를 사용하면서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유독 더 추웠던 2월의 어느 날, 긴급 야간 훈련이 진행되었고 전기매트의 전원까지 미처 끄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전기매트로 인한 숙소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육군부대는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감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L사 전기매트의 온도조절장치 이상으로 인한 화재가 원인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육군 부대는 L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7,500만원 ● 지급부대비 : 220만원

## 5. 전기안마의자 발화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6년 9월 11일

나. 종결일자 : 2020년 1월 12일

다. 사고원인 : 전기안마의자 발화

라. 사고내용 : B씨는 지난 봄, 자녀에게 선물로 받은 A사의 전기안마의자를 작은방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전기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 작동 일시정지를 해놓고 옆집에 잠시 들러 C씨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옆집 C씨와 다시 사용하려고 작은방으로 들어와 보니 전기안마 의자에서 불이 붙어있었고, 불은 벽과 천장 등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119에 신고를 하고 신발장에 있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커진 불씨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후 작은방에 들어가보았는데 안마의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작은방은 전소되었습니다. 전기안마의자 사용 당일, 작은방에 설치된 전기제품은 전기안마의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A사의 전기안마의자 자체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B씨는 A사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8,500만원 ● 지급부대비 : 600만원

## 6. 탈수기 화재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7년 1월 24일

나. 종결일자 : 2018년 3월 20일

다. 사고원인 : 탈수기 발화

라. 사고내용 : OO구에 위치한 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종합체육시설입니다. 문화센터는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지하1층 수영장에 E사의 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용객 수가 비교적 적은 평일 새벽시간에 탈수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영장 탈수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용객들이 대피하였고, 샤워실과 락커룸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OO구 문화센터장은 탈수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E사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6,800만원 ● 지급부대비 : 200만원

## 7. 드라이기 사용 중 화상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6년 9월 5일

나. 종결일자 : 2016년 11월 1일

다. 사고원인 : 드라이기 과열

라. 사고내용 : 전업주부 A씨는 2년 전 마트 오픈행사에서 경품으로 받은 C사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머리를 말리던 도중 큰 폭발음과 함께 드라이기가 터지는 사고로 손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해당 드라이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C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30만원 ● 지급부대비 : 100만원



## 8. 튀김기 화재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20년 4월 29일

나. 종결일자 : 2020년 10월 21일

다. 사고원인 : 튀김기 온도 자동제어 시스템 고장으로 화재

라. 사고내용 : 최근 새 아파트로 입주한 H씨는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 준비를 위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준비하며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등 여러 조리도구를 한 번에 사용하며 바쁘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메뉴 중 하나인 떡볶이와 튀김을 준비하기 위해 떡볶이 양념을 준비하며 Y사의 전기튀김기를 사용해 기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준비로 정신없었던 H씨는 전기튀김기에 예열한 기름을 잠시 잊고 있었고, Y사의 전기튀김기가 갑자기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H씨는 Y사의 온도자동제어 장치 고장으로 인한 기름온도 자동제어 실패로 발생한 화재 사고라고 주장하며 Y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300만원 ● 지급부대비 : 80만원

## 9. 커피머신 폭발

### ● 사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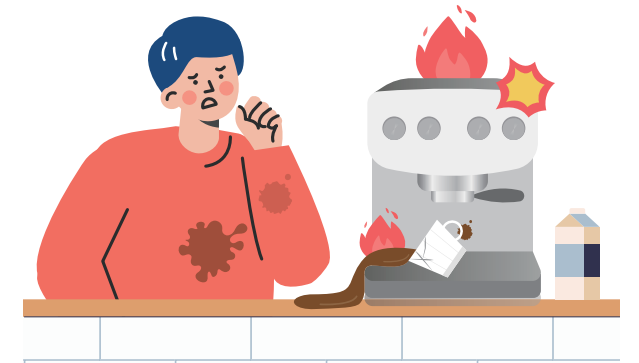
가. 사고일자 : 2020년 9월 20일

나. 종결일자 : 2020년 11월 20일

다. 사고원인 : 커피머신 과열로 인한 폭발

라. 사고내용 :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J씨, 매월 월급을 조금씩 모아 그동안 갖고 싶었던 B기업의 최고급 커피머신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좋아하는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J씨는 사고 당일에도 다른 날들과 다르지 않게 마셔왔던 모닝커피를 내리기 위해 평소처럼 기기를 작동시켰으나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어 벽지와 천정, 바닥 등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제조사인 B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170만원 ● 지급부대비 : 50만원



## 10. 헤어고데기 사용 중 제품 폭발로 인한 화상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20년 1월 5일

나. 종결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사고원인 : 헤어고데기 사용 중 제품 폭발로 인한 화상

라. 사고내용 : 평소 뷰티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K씨는 최근 홈쇼핑 및 소셜마켓에서 유행하고 있는 Q사의 헤어고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K씨는 헤어고데기가 높은 열을 내는 미용기기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항상 콘센트를 뽑아 제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K씨는 중요한 약속으로 아끼던 헤어고데기 제품을 꺼내 평소와 같이 헤어을 세팅하기 위하여 헤어고데기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며 K씨의 팔에 튀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K씨는 제조사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170만원 ● 지급부대비 : 50만원

## 11. 전기찜질기 발화

### ● 사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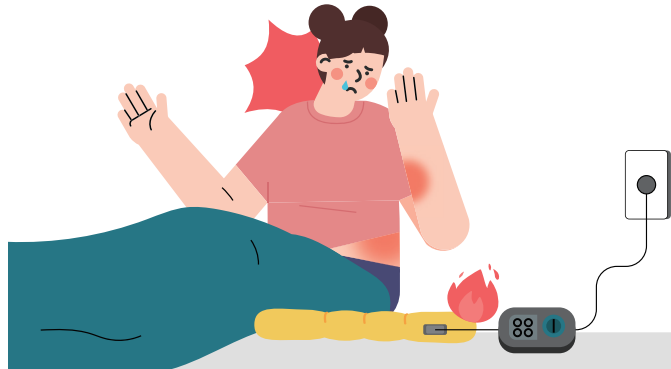
가. 사고일자 : 2020년 1월 30일

나. 종결일자 : 2020년 4월 29일

다. 사고원인 : 전기찜질기(배) 발화

라. 사고내용 : 평소 위장장애를 앓고 있던 S씨는 지인으로부터 배를 찜질해주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V사의 전기찜질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S씨는 평소대로 전기찜질기를 사용하고자 완충 후, 전원을 켜둔 채로 소파 위에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기기가 예열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전기찜질기가 놓여있던 소파가 타고 있었습니다.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으나, 조기에 발견한 탓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V사의 전기찜질기 제품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 V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200만원 ● 지급부대비 : 50만원



## 12. 선풍기 발화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6년 7월 17일

나. 종결일자 : 2016년 9월 21일

다. 사고원인 : 멀티코드에 사용한 선풍기 과부하

라. 사고내용 : L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첫 주거공간으로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독립하고 첫 여름을 맞이하였는데, 높은 습도 때문에 F사의 제습기와 T사의 선풍기를 구입하여 매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룸 구조상 전기콘센트가 모자라 부득이 멀티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한여름 장마철, 평소와 같이 제습기와 선풍기를 동시에 켜두고 외출 후 돌아오니 선풍기가 전소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거실 일부 벽지 등이 불에 의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선풍기 판매업체 T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50만원 ● 지급부대비 : 130만원

## 13. 드론의 배터리 발화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6년 11월 3일

나. 종결일자 : 2017년 1월 19일

다. 사고원인 : 드론의 배터리에서 충전 중 발화

라. 사고내용 : 새로운 취미로 드론 조종을 시작하기 위하여 E씨는 X기업의 드론을 구입하였습니다. 집 앞 마당에서 드론 조종 연습을 매일하던 E씨는 매일 밤 드론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낮에 드론을 조종하였고 그날은 좀 더 멀리 조종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E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기 전, 드론의 전원을 끄고 드론 본체에서 배터리팩을 분리하였고, 충전 중을 확인하는 빨간 불빛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밤, 수면 중에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잠에서 깬 E씨는 드론을 충전하고 있는 곳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았고 황급히 소화하여 큰 불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드론만 충전하고 있고 다른 전기제품은 사용 중이 아니었기에 E씨는 드론 판매업체인 X기업을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100만원 ● 지급부대비 : 60만원



## 14. 멀티쿠커 제품 파손으로 인한 화상사고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7년 3월 22일

나. 종결일자 : 2017년 6월 28일

다. 사고원인 : 멀티쿠커 제품 파손으로 화상

라. 사고내용 : 주부 B씨는 식사 준비를 위한 찜과 탕 그리고 그릴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W사의 멀티쿠커를 홈쇼핑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멀티쿠커를 사용하여 다양한 저녁요리를 준비할 수 있었던 주부 B씨는 저녁메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입한지 약 한달 쯤 지났을 때, 주부 B씨는 멀티쿠커를 사용하여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고기를 굽다보니 연기와 냄새가 많이 나서 베란다로 장소를 옮겨 굽기 위하여 제품의 본체를 들다가 본체손잡이 파손으로 내부 도자기까지 파손되어 주부 B씨는 양쪽 발에 화상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부 B씨는 W사를 상대로 PL보험 사고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200만원 ● 지급부대비 : 90만원

## 15. 조명제품의 포장 미흡으로 인한 신체상해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8년 5월 19일

나. 종결일자 : 2018년 7월 13일

다. 사고원인 : 조명제품 포장 미흡으로 인체 상해

라. 사고내용 : P씨는 홈인테리어에 흥미를 느껴 인테리어 소품으로 조명을 구입하고자 R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P씨는 J사의 인테리어 조명을 구입하고자 개별 박스 포장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집어 드는 순간, 제품이 박스 아래로 빠지면서 유리조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은 사방으로 튀었고, P씨의 옆에서 쇼핑하고 있던 U씨에게 유리조각 파편이 튀어 다리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P씨와 U씨는 J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90만원 ● 지급부대비 : 60만원



## 16. 정수기 누수 침수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5년 7월 8일

나. 종결일자 : 2016년 8월 10일

다. 사고원인 : 정수기 누수로 인한 침수

라. 사고내용 : K씨는 아버지 회사 이전 기념으로 A사의 얼음정수기를 한 대 선물로 드렸습니다. 약 1년간 사고 없이 K씨의 아버지 회사 직원 모두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정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들은 정수기에서 누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고, 일부 직원의 컴퓨터 등이 침수되어 고장이 나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A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500만원 ● 지급부대비 : 90만원

## 17. 압력밥솥 터짐으로 인한 신체상해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4년 8월 6일

나. 종결일자 : 2016년 2월 26일

다. 사고원인 : 압력밥솥 터짐으로 인한 신체상해

라. 사고내용 : A씨는 복날을 맞아 온 가족의 보양식 준비를 위하여 닭백숙 요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트에서 미리 닭을 구입하였고, 새로 구입한 O사의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닭백숙 요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더운 여름 복날의 한낮에 A씨는 계획대로 닭백숙을 요리를 시작하였고, 약 30분정도 후에 압력밥솥이 갑자기 '펑'소리와 함께 터지면서 주방에 요리하던 A씨는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상을 크게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A씨는 O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합의종결 ● 지급보험금 : 1,200만원 ● 지급부대비 : 160만원

## 18. 전자담배 충전 중 화재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9년 11월 5일

나. 종결일자 : 2020년 12월 21일

다. 사고원인 : 전자담배 충전 중 배터리 화재

라. 사고내용 : 흡연자인 C씨는 주변 흡연자들로부터 전자담배로 바꿔보라는 권유를 받고 F사의 전자담배로 담배종류를 변경하였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한지 1개월 정도 지나고 C씨는 충전하는 번거로움을 제외하고는 만족하며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전자담배 충전을 위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충전기를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충전한지 약 30분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타는 냄새와 함께 충전 연결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회사 책상 및 서류들이 불에 그을렸고 연기를 조금 마셨던 C씨는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사인 F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자기부담금 미만 ● 지급보험금 : 없음 ● 지급부대비 : 90만원

## 19. 배수펌프 작동 오류로 인한 침수사고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9년 5월 27일

나. 종결일자 : 2019년 7월 12일

다. 사고원인 : 배수펌프 작동 오류로 인한 침수사고

라. 사고내용 : 노래방을 새로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Z씨는 영업시간 전, 직접 구석구석 청소를 하며 새로 개업한 가게를 깨끗하게 운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Z씨는 노래방 영업시간 전 평소와 다름없이 직접 화장실 물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청소 후, 나와 보니 S사의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노래방 전체 내부 바닥은 침수되었고, 벽체 일부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S사의 배수펌프 작동 오류로 인한 사고로 때문에 Z씨는 개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노래방을 휴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Z씨는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영업하지 못하게 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S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3,000만원 ● 지급부대비 : 200만원

## 20. 마사지기 사용으로 화상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8년 12월 1일

나. 종결일자 : 2019년 7월 3일

다. 사고원인 : 마사지기의 온도조절장치 이상으로 화상

라. 사고내용 : H씨는 부모님 생신 선물로 최근 신제품이라는 D사의 다리마사지기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여 선물했습니다. 겨울 추위를 유독 많이 타시는 부모님을 위해 온열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선물로 알맞다는 생각에 선물로 구입해 드렸습니다.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H씨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연락을 드렸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생일 선물로 드린 다리마사지기를 사용하시다 다리 화상을 입어 병원에 통원치료 다니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놀란 H씨는 부모님 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쪽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매주1~2회 통원치료를 다니며 약 3달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생신선물로 사드린 마사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어머니를 보자 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H씨는 제조사인 D사를 상대로 병원 통원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100만원 ● 지급부대비 : 50만원

## 유형2 생활용품(21~24)



## 21. 자전거 파손으로 신체상해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6년 9월 18일

나. 종결일자 : 2016년 10월 21일

다. 사고원인 : 자전거 핸들 파손

라. 사고내용 :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던 K씨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위해 A사의 자전거를 구매 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라이딩을 하기 위해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K씨는 갑자기 자전거 핸들이 파손되어 넘어졌고, 사고 직후 오른쪽 정강이부터 무릎 까지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인 K씨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 아닌 자전거 핸들 파손으로 인한 것으로 자전거를 판매한 A사의 PL보험사는 K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120만원 ● 지급부대비 : 50만원

## 22. 병 깨짐 사고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8년 4월 3일

나. 종결일자 : 미결

다. 사고원인 : 병 깨짐으로 인한 신체상해

라. 사고내용 : S씨는 회사에서 거래처와의 미팅이 끝난 후, 거래처 직원이 사온 X사의 비타민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음료를 마시고자 했습니다. 음료의 마시는 입구 부분을 잡고 냉장고에서 들어 꺼내려는 순간, S씨가 잡은 부분이 깨지면서 병 아래 유리부분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방으로 유리조각이 튀어나갔습니다. S씨는 들고 있던 병의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베이게 되었고, X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미결 ● 잔여준비금 : 50만원



## 23. 롤러스케이트 파손으로 신체상해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8년 6월 10일

나. 종결일자 : 2018년 12월 26일

다. 사고원인 : 롤러스케이트 파손으로 신체상해

라. 사고내용 : 매 주말마다 롤러스케이트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J씨는 친구에게 선물로 G사의 롤러스케이트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소중한 제품이었기에 주말에 신나게 타고 나면 매번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J씨는 다른 주말과 마찬가지로 롤러스케이트를 스케이트장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J씨가 오른쪽으로 코너를 도는 순간, 왼쪽 롤러스케이트의 부품이 빠지면서 J씨는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사고 직후, J씨는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J씨는 어느 정도 회복한 후, 사고 났던 롤러스케이트를 보았는데, 롤캡 플레이트의 앞 킹핀(바퀴고정 핀)이 부러지면서 앞바퀴이탈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J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롤러스케이트 제품 자체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J씨는 롤러스케이트 제조 및 판매업체인 G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650만원 ● 지급부대비 : 100만원

## 24. 고무장갑 사용 후, 피부발진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8년 12월 6일

나. 종결일자 : 미결

다. 사고원인 : 고무장갑 사용 후 피부발진

라. 사고내용 : B씨는 새 집으로 이사하고 처음으로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B씨는 각종 세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자 T사의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청소와 베란다 청소 등등 각종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있던 중 B씨는 갑자기 손이 따갑다는 느낌이 들었고, 빨갛게 달아오른 손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황급히 목욕을 마치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피부과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병명을 진단 내렸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고무장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생각에 B씨는 고무장갑 판매업체인 T사를 상대로 병원치료비와 피해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미결 ● 잔여준비금 : 250만원

## 유형3 어린이제품 및 기타제품(25~30)



### 25. 유아용 카시트로 인한 차량 시트 오염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8년 10월 16일

나. 종결일자 : 2018년 10월 22일

다. 사고원인 : 유아용 카시트로 인한 차량 보호매트 오염

라. 사고내용 : A씨는 신차를 구입한 기념으로 5세 자녀가 사용하던 오염된 카시트를 버리고 Y사의 새 카시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또, A씨는 T사에서 제조하는 범용카시트 보호매트를 구입하여 매트를 차량 내부에 장착했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A씨는 신차구입기념 가족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나들이를 다녀온 A씨는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고자 카시트를 집에 가져다 놓으려고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보리 색의 보호매트 하단 부분이 카시트로 인하여 까맣게 얼룩덜룩 오염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범용카시트 보호매트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A씨는 이해할 수 없었고, 카시트 제조업체인 Y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360만원 ● 지급부대비 : 10만원

### 26. 유모차 파손으로 신체상해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6년 5월 1일

나. 종결일자 : 2016년 5월 19일

다. 사고원인 : 유모차 이동 중 프레임 파손으로 신체상해

라. 사고내용 : S씨는 베이비페어에서 R사의 유모차를 구입하였습니다. S씨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5월의 봄나들이를 집 근처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내음을 즐기고 있던 S씨는 잠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 S씨는 서둘러 귀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모차를 끄는 순간, 유모차의 프레임이 파손되어 떨어지는 아이를 잡으려다 S씨는 얼굴에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S씨는 유모차 제조업체인 R사를 상대로 병원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면책종결 ● 지급보험금 : 0만원 ● 지급부대비 : 55만원

### 27. 의료기기 파손으로 환자상태 악화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6년 10월 17일

나. 종결일자 : 미결

다. 사고원인 : 의료기기의 파손으로 환자상태 악화

라. 사고내용 : 응급소방대원인 S씨는 떡을 먹다 목에 걸린 응급환자 F씨를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에 M사의 기관절개튜브를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환자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후에 기관절개튜브가 끊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환자 F씨는 병원에서 알맞은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M사의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응급소방대원 S씨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M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미결 ● 잔여준비금 : 280만원

### 28. 유아용 자전거 탑승 중 바퀴 빠짐

#### ● 사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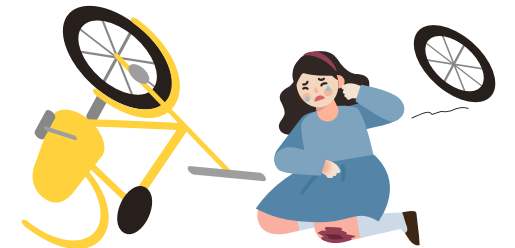
가. 사고일자 : 2017년 5월 27일

나. 종결일자 : 2017년 11월 20일

다. 사고원인 : 유아용 자전거 탑승 중 바퀴 빠짐

라. 사고내용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A씨는 4살 자녀 C양에게 B사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자전거를 선물하였습니다. 동네 근처 공원에서 C양은 엄마 A씨와 함께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C양이 자전거 타는 법에 익숙해 질 때 쯤, 탑승 중인 자전거가 좌회전을 하려 할 때, 바퀴가 빠지면서 기울어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자녀 C양을 보호하려다 엄마 A씨는 팔목이 부어올랐고, 병원에 가서 팔목인대 부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전거 자체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였고, 자녀 C씨가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전거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병원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면책종결 ● 지급보험금 : 0만원 ● 지급부대비 : 80만원



## 29. 액체세제로 인한 대물손해

### ● 사고내용

가. 사고일자 : 2018년 4월 26일

나. 종결일자 : 2018년 6월 27일

다. 사고원인 : 액체세제로 인한 차 시트 망가짐

라. 사고내용 : 카페를 새로 개업한 Y씨는 J사의 주방세제를 구입하였습니다. J사의 세제는 구입후기 들도 좋은 편이었고, 대용량세제가 필요한 Y씨에게 알맞은 제품이었기에 바로 구입 하였습니다. 부피가 큰 제품이었고, 이미 다른 짐들이 가득 찬 트렁크에는 세제를 실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Y씨는 차량 뒷좌석에 J사의 세제를 두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하며 새로 개업한 카페로 돌아갈 생각에 떨리는 Y씨는 차량 신호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세제 뚜껑이 폭발하였고, 폭발한 세제로 인하여 뒷좌석 시트가 젖으며 일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Y씨는 세제 제조사인 J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면책종결 ● 지급보험금 : 0만원 ● 지급부대비 : 55만원

## 30. 설비 배관 누수

### ● 사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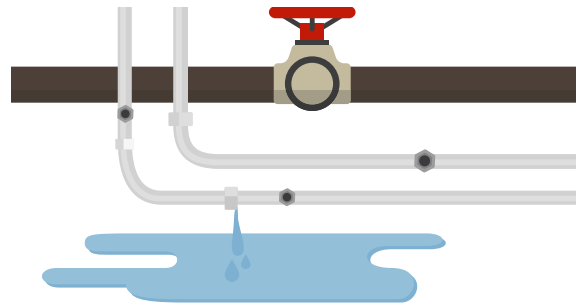
가. 사고일자 : 2017년 9월 26일

나. 종결일자 : 2019년 9월 25일

다. 사고원인 : 설비 배관 누수

라. 사고내용 : V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H씨는 새로운 출발의 기분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사한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TV를 보고 있던 H씨는 거실바닥이 축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H씨의 집안 전체에서 물이 떨어 지고 수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가전제품이 고장났고, H씨의 재산 일부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H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사실을 말했고, 관리사 무소는 아파트 설비 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설비배관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지급종결 ● 지급보험금 : 1,300만원 ● 지급부대비 : 110만원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PL 사고 사례집

## PART.3

### PL보험 Q&A



## PART. 3

### PL보험 Q&A



#### PL보험 가입 시 포함사항과 가입 방법은?



PL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으로 정확하게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사가 처리해 주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조업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PL보험은 제조업자 등이 단독으로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PL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외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검토한 후 가입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Q. 1. 제조물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될 수 있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품, 사무용품, 식품, 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과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이 PL법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PL법이 적용됩니다.

## Q. 2. 결함이란 무엇인가요?

**A.** 제품의 품질하자가 아니고 인적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의 안전상의 하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놓고 판단합니다. 결함의 유형으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Q. 3. PL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PL보험에 가입을 하면 PL 사고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외 수출품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른 법률구조 및 소송형태 등으로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처리를 전문가와 보험사에 일임하면 상품의 품위손상을 방지하고, 수출증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4.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A.** 제조물의 종류,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과거의 해당업체 및 동종 업계 사고사항, 특별약관, 연간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Q. 5.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A.**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수입한 자가 책임을 지며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도 그 부품이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집니다. 또 제조물을 판매한 자,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은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책임도 추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PL보험 가입 및 상담문의



 한국제품안전협회 PL보험 담당자 홍지영 주임

 TEL 070-4010-7719

 FAX 02-890-8309

 E-Mail [hjy@ksafety.kr](mailto:hjy@ksafety.kr)

**발행일** | 2021년 00월

**펴낸곳** | 한국제품안전협회

**기획·디자인** | 이문기업 ☎02-504-1600~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동의 없이 무단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